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籝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주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서세 636주기 둔촌선조 불천위제 성대히 봉행



둔촌선조 제636주기 불천위제 봉행



둔촌선조 불천위제 봉행을 마치고

2023년 7월 23일(일, 음력 6월 6일) 11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둔촌(諱集) 선조의 사당인 추모재(別廟 兼 影堂)에서는, 둔촌 선조 서거 제 636주기 불천위제(不遷位祭)가 봉행(奉行)되었다. 그동안 불천위제는 둔촌선조께서 향사된 사액서원인 구암서원(龜岩書院, 강동구 암사동)이 1871년 훼철(毀撤)되고, 조선조말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인 혼돈과 종손가의 사정으로, 안타깝게도 세사부조(世祀不禱)를 모시지 못하다가, 대종회 주관으로 종인들이 뜻을 모아, 2003년 부터 추모형식의 생신제를 모셔왔으나, 작년부터 구례(舊禮)에 따라 다시 불천위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전날 밤부터 내리는 비가 아침이 되어도 그치지 않고, 빗줄기는 거세기만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끝나고, 또한 각종 수상자들에 대한 종인들의 시상식을 겸한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종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으나, 정해진 날자를 변경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집행부는 많은 걱정속에서, 새벽부터 우의를 수소문하여 200여 개를 준비하였다. 9시부터 참사를 위해 모여든 종인들은, 10시 반이 되었을 즈음에는 25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선 불천위제 봉행 전 행사로 추모재 진입로 확장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상, 종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상임이사 5인에게 공로패, 효열인 종인 10인, 모범 종인 10인, 특별장학생 38인에게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이날 모범 종

인 · 효열인 수상자는 아래 표와 같다). 많은 비가 내리는 우중인지라 수상자와 가족, 참배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수상자 대표자를 선정하여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11시가 되어 주변을 정리하고, 둔촌선조 불천위제 봉행이 시작되었다. 일부는 영당 내에 일부는 천막 안에서 반절로 예를 다하였다. 약 40여분 간의 제례 봉행이 끝나고, 집행부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였다. 이날 분정은 초헌에 장손가의 후손을 대표하여 사인공파 종회 용화 회장, 아헌에 둘째 아드님 덕을 대표하여 문숙공파 종회 용중 회장, 종헌에 셋째 아드님 덕을 대표하여 목사공파 종회 춘신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제례의 집전은 독축에 걸쳐 대종회 전 총무이사, 집례에 석재 대종회 전 문화이사, 집사에 종우, 무환, 문재, 종목 현종께서 수고해 주었다. 또한 광원군과 종회에서 제례 봉행에 향축을 봉헌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빗줄기가 소강상태에 든 잠깐의 시간 동안 수상자들은, 주변 산책로와 경관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수상의 영광을, 마음껏 카메라에 담았다. 전과 같으면 재실 주변 공원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즐기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나, 우중인 관계로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삼삼오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나누어준 비닐봉지에 담아, 지파별로 마련한 장소를 찾아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였다. 우중임에 이날 참석해 주신 모든 종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둔촌(諱集) 선조의 자는 성로(成老)이며, 초명은 원령(元齡)이고, 호는 묵암자(墨巖子)이다. 고려 충숙왕 14년 정묘(丁卯 1327)에 광주군 구천면 둔촌(지금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증 판서공(贈判書公 諱 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21세가 되는 충목왕 3년 정해(丁亥 1347)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29세가 되는 공민왕 4년 을미(乙未 1355) 문과병과(文科丙科)에 제3인(三等)으로 등과하여, 영주원(寧州院 충남 천안)에 올랐다. 공은 공민왕의 신임이 두터운 요승(妖僧) 신돈(辛旽)의 횡포가 심하여지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극구 비난하여, 신돈이 포살령(捕殺令)을 내리므로, 둔촌동의 일자산 토굴로 피난하여 숨어 살았으나, 장차 그 화(禍)가 미치게 되었으므로, 공민왕 무신(戊申 1368)년 피난하여 경상도 영천의 동년(同年) 천곡 최원도(泉谷 崔元道) 집에 은거하였다. 공민왕 20년(辛亥 1371) 신돈이 대역죄로 주살되자, 송경(松京 지금의 개성) 용수산(龍首山) 아래 있는 현화리(玄化里) 옛집으로 돌아와, 이름을 집(集)으로, 자(字)는 호연(浩然), 호(號)는 묵암자(墨巖子)를 둔촌(遁村)으로 고쳤다. 그로부터 몇 곳의 외직(外職)을 지내다가 현재의 창원인 합포에 출진하여 왜구를 격퇴하고 돌아왔다. 내직으로 들어와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광주부 대원촌(大院村)과 금토동(金土洞), 둔촌동(廣州府 遁村洞)에 은거(隱居)하다가 곧 우왕 6년

(1380) 여주(驪州) 천령현(川寧縣 지금의 여주군)으로 옮겨, 봉서정(鳳棲亭)을 짓고 우거(寓居)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삼은(三隱)과 시문(詩文)을 주고받으며, 도의(道義)로써 교우(交友)하니,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공은 학문이 높고 고덕(高德)하며 절의(節義)가 대단했던 분으로, 세인들은 목은(牧隱 李穡), 포은(圃隱 鄭夢周), 도은(陶隱 李崇仁)과 더불어 공의 호(號)인 묵은(墨隱)을 합쳐 여말(麗末) 4은(四隱)이라 불렀으며, 후일에는 오촌(五村), 팔청(八淸), 구일(九逸)의 유사(有司)로 추앙받게 되었다.

고려 우왕 13년 정묘(丁卯 1387)에 서거하니, 향년 61세이며, 광주군 세촌면 대원리 현 유택(성남시 하대원동 산 7-1)에 모셨다. 많은 자손(子孫)들이 벼슬에 나아가 재상(宰相)까지 오름으로, 조선조(朝鮮朝)에서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었으며, 조선조 현종 8년(정미 1667)

에 사림(士林)에서 광주 암사강상(廣州岩寺江上) 현 강동구 암사동 산 1-1)에 서원(書院)을 짓고, 주벽(主壁)으로 제향(祭享)하였으며, 숙종 23년(1697)에 구암서원(龜岩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이 내려졌다. 저서에 시고집 둔촌잡영(詩稿 遁村雜詠 국가보물 제1218 호) 두 권(294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음)이 세상에 전하여 남아있다. 공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998년 10월 13일에는 재사(齋舍)인 추모재(追慕齋)가 준공(竣工)되었고, 재사 내에는 공의 영정(影幀)과 감실에 신주(神主)가 봉안(奉安)되어 있다. 장손가의 어려움으로 불천위제를 모시지 못했으나, 2003년 선생탄신 676주년을 기화로 생신제를 모셔 오다가, 대종회가 주관하여 2022년 6월 28일 신주를 봉안하고 2022년 7월 4일 불천위제를 다시 봉행하게 되었다.

배위(配位)이신 정화택주 영주황씨(貞和宅

主 郢州黃氏)는 휘 석범(諱 碩範)의 따님으로, 조선조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으며, 슬하(膝下)에 3남 1녀를 두었다. 장자는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 겸 보문각 직제학(兼寶文閣直提學) 증 영의정(贈領議政) 청백리(淸白吏) 지직(之直)이고, 차자(次子)는 의정부(議政府) 참찬(參贊)으로 시문숙(諡文肅) 지강(之剛)이며, 셋째는 성주목사(星州牧使) 지유(之柔)이다, 성종대 팔극조정(八克朝廷)의 대부(大夫)들이 모두 공의 증손(曾孫)이다. 장녀(長女)는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의 진한부인(辰韓夫人)이다



특별장학생 장학금 수여를 마치고

■ 2023년도 감사상, 공로패, 모범종인 및 효열인 수상자 명단

[감사상 수상인]

소속	직책	성명	사유
성남시 중원구청	건설과장	조명환	평소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종중의 숙원사업인 둔촌선조 묘역의 진·출입로 불편해소에 적극 협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동장	안해인	평소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종중의 숙원사업인 둔촌선조 묘역의 진·출입로 불편해소에 적극 협조

[공로패 수상인]

지파	성명	직책	재직기간	대	포상사유
좌의정공	석연	상임부회장	2017.4.9~2020.6.30	20	광주이씨 대종회에 3년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종회의 발전과 종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광원군	걸재	총무이사	2017.4.14~2023.3.31	21	광주이씨 대종회에 6년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종회의 발전과 종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광릉부원군	석재	문화이사	2014.5.20~2020.6.30	21	광주이씨 대종회에 6년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종회의 발전과 종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사인공	종철	재무이사	2017.4.14~2020.6.30	22	광주이씨 대종회에 6년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종회의 발전과 종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목사공	문신	재무이사	2020.7.1~2023.3.31	22	광주이씨 대종회에 3년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종회의 발전과 종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모범종인]

지파	성명	연령	대	포상사유
사인공	용백	81세	20대	성남 및 창녕 선조 세일사에 빠짐없이 참석 열과 성의를 다하며 송조이념이 투철 종친 간 돈목을 위해 노력, 타 종인에게 귀감
광릉부원군	두영	82세	23대	각 지파 선조 세일사 및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 송조 정신이 투철하며, 모든 종인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모범 종인
문경공	명수	75세	23대	30여 년 동안 종사 및 제례에 지파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등 모든 종인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 종인
광천부원군	광재	74세	21대	소종중의 종회장을 십수 년간 역임, 유택을 천묘하는 등 세일사 봉행하는 날을 종인 전체의 단합과 송조의 날로 정하여 돈목을 조성하는 모범 종인.
광원군	석래	75세	19대	광일회 및 감사공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종회 활성화와 종재 확충에 헌신 노력하여 모든 종인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 종인.
좌의정	완교	71세	19대	지역사회에서 우리 광이의 위상을 드높이고 수년간 종중의 선산과 유적지 보존관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 종인.
참판공	치만	95세	21대	40여 년간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변 종친들에게 종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종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모범 종인.
좌통례	관수	84세	23대	50여 년간 연기군 일대 선조의 산소를 매년 벌초 관리하고, 홍수로 인해 산소가 손괴되었을 때 사비를 들여서 묘소를 정비하는 등 종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종인
문숙공	용관	70세	20대	선조들의 유훈을 존중, 조상 섬김에 한결같으며 의식을 잃은 시민을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겨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운 모범 종인
목사공	범수	67세	23대	고향에 살면서 30여 년간 종회활동에 적극 참여, 시향 봉사에도 솔선수범하는 타의 모범 종인

[효열인]

지파	성명	연령	가족관계	부문	포상사유
사인공	김기수	59세	21대의 처	효부	어려운 가정의 만머느리로 한결같이 조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공경하며 봉양.
광릉부원군	이지수	76세	23대의 처	효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심을 다해 봉양하였고, 지금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부인과 아픈 딸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병.
문경공	이지혜	36세	25대의 처	효부	먼 타국으로 시집와 남편의 농사일을 도우며,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
광천부원군	이종례	56세	22대의 처	효녀	출가해서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척추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친정아버지를 위해 이사, 조식으로 봉양하는 등 효심이 지극
광원군	노명순	62세	22대의 처	효부	돌아가신 시조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현재는 연로하신 시부모를 봉양, 남편의 농사일을 도우며 문중 시제사 및 벌초에 참여 타의 귀감이 되는 효부
좌의정	유수근	84세	19대의 처	열녀	일찍이 사별한 남편을 대신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5남매를 훌륭하게 양육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등 타의 귀감
참판공	이창훈	55세	22대의 처	효자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 형제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장시켜서 출가
좌통례	정귀순	68세	19대의 처	효부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 특히 초기 치매 증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아버지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외부 시설에 맡기지 않고 조식으로 간호
문숙공	조미자	55세	20대의 처	효부	남편의 사업실패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 문중의 세일사 등 제수 준비를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범적인 효부.
목사공	서귀분	84세	23대의 처	효부	시부모님 생전에 효를 다해서 모셨으며, 선조에 대한 숭모의 마음이 진실되고, 각종 제례를 봉행함에 초지일관 정성

2023년도 제2차 대종회 임원회의 개최

대종회는 2023년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인사동 본관 빌딩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 임원 32명 중에서 사정상 3명의 임원이 불참하고 29명이 참석 한 가운데 대종회장은 의장으로서 “본인이 취임 이후 첫 임원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그동안 중무를 집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오늘 임원회의에 상정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하니, 임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의안이 상정된 회의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대종회 발전에 대한 임원들의 의지와 관심을 엿볼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의안 : 모범 종인 및 효열인 표창 대상자 사심의 건 : 원안의결
- 제2호 의안 : 광주이씨 대종회 문서관리규정 제정(안) :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기타 경

미한 자구수정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 의결

- 제3호 의안 : 광주이씨 대종회 취업규칙 제정(안) : 가결을 유보하고 재정비하여 차기 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
- 제4호 의안 : 연혁집 출판비용의 증액에 관한 건 : 연혁집 출판부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권당 5만원에 판매하여 총당기로 하고, 우선 문화홍보예산을 사용하기로 의결
- 제5호 의안 : 직원 채용의 건 : 문화홍보사업 관련 보조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의결
- 제6호 의안 : 장기간 고액 월 차임 연체자 법적조치 진행의 건 : 보고의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원안의결
- 제7호 의안 : 대종회 년도별 수입·지출 및 2023년도 예산 분석의 건 :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
- 제8호 의안 : 대전 오피스텔 활용방안에 관한 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종회에서 대전종친회가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제9호 의안 : 둔촌선조 묘역 숙원사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건 : 둔촌선조 묘역 진입로 확장관련 협조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되 포상금을 30만원으로 증액 의결
- 제10호 의안 : 퇴직 상임 임원 포상에 관한 건 : 전임 상임이사 5명에 대하여 포상하기로 원안의결
- 제11호 의안 : 대종회 토지 무상 임대 금지의 건 : 무상 임대하고 있는 대종회 소유 토지와 건물(성남회관, 영천 시조 묘역 토지 8필지, 하대원동 토지 등)에 대하여 유상임대로 전환 원안의결
- 기타 건의 등 논의사항 : 청백리공 묘역 주변 토지 매각 관련 현양 사업비 지원 건의, 청장년연합회 지원예산에 대하여 대종회에서 감사할 것을 건의, 광이의 날 행사 참가 버스비용 대종회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장학생 선정은 대학생 위주로 할 것을 건의, 둔촌재실 관리인은 지파별로 순회 선정할 것을 건의 등

제12회 강동 “둔촌 백일장” 성황리에 개최하다

강동문화원(원장 신동명)은 지난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12회 둔촌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비대면 공모전으로 진행하던 백일장을 올해는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488명(초등부 122명, 청소년부 119명, 일반부 247명)이 기량을 겨루었다.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와 함께한 학부모 등 800여 명이 운집하여, 10시 개회식에 이어 10시 30분부

터 본 백일장이 개최되었다.

백일장 식전 행사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주영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 진선미·이해식·전주혜 국회의원,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 강동문화원 임원 등 관내 주요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하여 백일장 참가자들을 격려 축하하였다.

신동명 강동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둔촌 백일장을 통해서 문학적 소양과 품격을 한층 드높

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인으로 성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후원하는 광주이씨 대종회 주영회장은 둔촌 이집선생 후손을 대표하여 “강동구는 둔촌선생의 유혼이 깃든 우리 광주이씨의 고향으로, 선생을 기리는 백일장을 개최하게 되어 한없이 기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백일장이 되도록 대종회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둔촌선생의 후손이기도 한 해식 의원은 “강동구에는 둔촌선

생에 관련한 유적이 많은 곳으로, 선생의 유적을 돌아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매년 다양하고 그 시대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온 둔촌 백일장의 이번 글제는 박희 심사위원장이 발표하였는데 「훈법」, 「의자」, 「인공지능」, 「생명의 땅」, 「갈등」 등 다섯 가지로, 참가자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원고지에 담아내었다. 참가 부분은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제주를 비롯하여 멀리 통영, 여수에서도 참여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둔촌백일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학교 문예 동아리에서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고 단체 참가하기도 하였다.

본 백일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2023

년 7월 31일 64명(초등부 23명, 청소년부 23명, 일반부 18명)의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시상식은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성황을 이룬 백일장



둔촌백일장 개회식

제2회 둔촌백일장 심사결과 초등부 수상자 명단

[초등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성명, 소속, 부문, 제목, 글제. Rows include 장원 이다연, 차상 송아인, 차하 조준상, 입상 허나결, and 특별 안효주.

[청소년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성명, 소속, 부문, 제목, 글제. Rows include 장원 한준혁, 차상 김수빈, 차하 김정은, 입상 서영은, and 특별 신주희.

[일반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성명, 주소, 부문, 제목, 글제. Rows include 장원 정보라, 차상 고미령, 차하 이연정, and 입상 김양덕.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성명, 주소, 부문, 제목, 글제. Rows include 2 김주영, 3 박선희, 4 배진희, 5 남윤미, 6 서윤주, 7 한남희, 8 양정숙, 9 이태영, 10 황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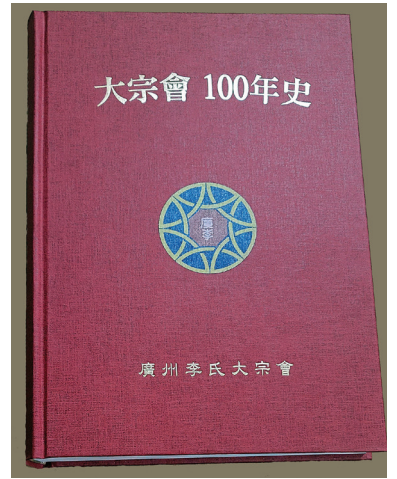
대중회 연혁집 “광주이씨 대중회 100년사” 발간

대중회는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廣李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함으로써, 문중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영구적으로 기록 유지 관리하기 위해, 80여 년의 역사를 정리하여, 「대중회 100년사」라는 제호로 연혁집을 발간하였다. 본 연혁집은 창고에 쌓여있는 30여 만장에 달하는 오래된 문서자료를 정리하고, 전자문서화를 병행하면서 오랜 시간 끝에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총 768페이지(규격 A4 용지 크기)에 양면 칼라 인쇄로 양장제본(하드커버, 마루양장)하여 고급스럽게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권두화보, 대중회 연원, 연도별 소사, 대중회 조직 및 인명록, 주요업무 추진 내용, 재산관리 현황, 유적지 보존관

리, 산하단체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편에는 보화에 참고되는 광주이씨 문헌록, 광이방목, 광주이씨 인구분포, 문화행사 일정, 제례 홀기 및 축문, 상계 및 지파종회 소목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혁집은 대중회의 발전사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록물로서 종인들이 구독 소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료되므로, 많은 종인들의 구입을 기대한다. 정가는 1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많은 종인들에게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인쇄비 수준의 판매 가격 5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입을 원하는 종인들께서는 지파종회 또는 대중회(02-735-1720 총무담당)에 연락하고 대중회 계좌(기업은행 024-

098339-04-094)에 입금하면 확인 즉시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諱 克培)파종회

■ 광릉부원군(諱 克培)서세 528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릉부원군 불천위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3년 7월 19일 광릉부원군 서세 528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불천위제에는 본 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대중회 주영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석재 연혁집 편집위원,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목사공파 종회 춘신 회장, 광성군파 종회 경수 회장, 광희 종손,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 종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 종회 응호 부회장, 충희공 종회 용식 전“회장, 충민공 종회 종삼 회장, 대중회 걸재 전“총무 등 70여명의 참사 종인이 참석하였다. 봉행 전 문수 총무의 진

행으로 7월 6일 별세한 본 종회 종선 전“회장 명복을 비는 묵념과 내빈소개, 지파 종 회장 인사, 감사패 수여식, 그리고 문수 총무로부터 광릉부원군 파조님 행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불천위제에는 종봉 화수회 총무 집례로 축에는 만재 부회장, 집사에는 철래, 종길, 종철, 근수 현종이 맡아 봉사하였다. 그리고 헌관 분정은 초헌례에 문수 총무 봉사손, 아헌례에는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 종헌례에는 광성군파 광희 종손이 헌작하였다. <행적 생략>

끝으로 향축대를 봉헌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패 수여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2023년 7월 19일 광릉부원군 파조님 불천위제에 앞서 평소 선조님께 숭조하고 종인 간 돈목과 화합을 꾀하는 분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다.

금 번 시상은 광원군파 종회 용철 회장이 선정

되어 감사패와 부상이 수여되었다.

용철 회장은 평소 남다른 선조님 숭조와 종인 간 돈목을 중시하는 분으로 타의에 귀감이 되어 숭고함을 기리고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여 달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광릉부원군파 종회 감사패 수여



■ 광릉부원군파 종회 14대 종선(鍾宣) 회장 별세

광릉부원군파 종회 14대 회장을 지낸 종선 전“회장께서 2023년 7월 6일 향년 87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종선 전“회장은 1936년생으로 연세대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1963년

제일은행에 입행하여 여의도 지점장, 본점 인사 부장, 상무 이사로 승진한 후 정년퇴임 하였다. 이후 고인은 뉴코아 백화점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한편 종선 전“회장은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 6년간(2016-2021)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18대 종손이기도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10대 용훈(容勳) 회장 별세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 10대(1996-2000) 회장을 지낸 용훈 전“회장께서 2023년 7월 26일 94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용훈 전“회장은 1929년생으로 서울대 사대를 졸업하고, 서울 교육 동작 교육청 학무 과장, 장학관, 서울서부 교육청 교육장, 서울 교육청 학무 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고인은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 1996-2000년 까지 회장을 지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경공(諱 克堪)파종회

■ 문경공파 종회 새 사무실 마련하여 이전 완료

광주이씨 문경공파 종회(회장 경수)는 30여 년

간 수송동 소재 대종회 빌딩 2층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생활해 왔으나, 대종회의 현양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천구 가산동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문경공파 종회는 새 사무실 이전에 따른 종회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고, 종인들을 위한 종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며, 선조 현양사업에도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하였다.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하는 종회가 될 수 있도록 참

여를 부탁한다.

- 신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가산하우스디와이즈타워 201호
- 우편번호 : 08592
- 사무실 일반전화 : 02-6291-1100
- 사무실 FAX번호 : 02-6291-1101

- 문경공파 총무 종민 -

■ 이종배 의원 2023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발전 공로상 수상

우리 광주이씨 문중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3선)이 “2023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발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종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으로 의정 발전에 대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혁신 4.0연구포럼”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무분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규제 영향 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종배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 힘 당”의 첫 정책위원장을 맡으며, 국가 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살폈는데 “미래 산업 촉진과 규제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매년 산업경쟁력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 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상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1957. 충청북도 충주 출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1980.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2011. 6 행정안전부 제2차관
- 2011. 10 제8대 충청북도 충주시 시장
- 2014. 7 제19대 국회의원 (19·20·21대 3선, 충북 충주시 국민의 당)
- 2017. 9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2018. 1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8. 12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2020. 5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 2020. 9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의장
- 2021. 8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3. 7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



광원군(諱 克墩)파종회

■ 양진재공(養眞齋公) 종회 대의원 총회 개최

광원군파 양진재공(養眞齋公) 종회(도유사 容鑞)는 2023년도 제1차 대의원 총회를 지난 7월 17일(土) 오전 10시 보성군 겸백면 원수남길 소재 영모재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호우주의보 속에 열린 이날 대의원 총회는 총대의원 33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1명이 참석 성원을 이루었다. 호우를 무릅쓰고 참석한 대의원들은 국민의례, 조

상님께 묵념, 도유사 인사말, 공로품 전달, 경과 및 재무보고, 부의 안건 순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용호 도유사는 도유사 취임 첫 대의원 총회 인사말을 통해 “종원간 화합단결, 선영수호, 종재보존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용호 도유사는 공로품 전달식에서 그동안 양진재공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래 직전 도유사와 재선 총무유사, 정재 재무유사에게 공로품으로 강진청자 한 점씩을 전달했다. 총회는 경과보고와 재무보고가 끝난 후, 부의안건으로 양진재공 묘소 사초 및 주변정리 문제는 오늘 10월 10일(음력) 시제 전까지 산소 사토작업을 끝내기로 했으며 ② 영모재 제실 전남도 문화재 등록 문제는

계속 추진키로 했다. 참석 종원들은 총회가 끝난 후 용호 회장이 준비한 기념품 60여개(1인당 쌀 국수 3묶음)을 나누어 가지고 점심 식사 후 다음 회의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 양진재공 종회 자문위원 광래記 -



광원군파 양진재공종회 총회 개최

좌통례공(諱 克堅)파종회

■ 통제사(統制使) 경무공(諱 宇回) 불천위제 봉행

2023년 7월 7일(금 음력 5월 20일) 오후 3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84번안길 6 소재 경무



사 부조묘에서 좌통례공의 장자인 부사공계 경무공(휘 우항) 불천위제가 봉행 되었다. 이날 연일되는 우중소식으로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가운데 습하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부조묘에는 통제사공 종회(종회장 형래) 주관하에 본손과 방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헌관에는 초헌에 종회장 형래(亭來, 8대손), 아헌에 관찰사공종회 회장 재석, 종헌에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충교가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용한(容漢), 진행에 종우(鍾雨) 현종이 수고하였다. 제례봉행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음복과 통제사공 종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마치고 여비와 선물보따리를 받아들고 귀가 하였다.

경무공의 자는 여구(汝久)이고 시호는 경무(景武)이며, 삼도수군통제사 도빈(諱 道彬)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五衛)에 속한 사과(司果)

에 임명되었다. 1698년(숙종 24) 함경도 병마절도사, 1701년 총융사를 거쳐 포도대장·삼도수군통제사 등 군사의 요직을 두루 지내고 1721년(경종 1) 오위의 부사직이 되었으나 이 해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신임사화로 소론의 탄핵을 받아 고금도(古金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소론은 목호룡(睦虎龍)으로 하여금 노론의 4대신을 역모로 무고하게 하여 노론일파를 실각하게 하였으며, 이우항도 백망(白望)·이희지(李喜之) 등과 함께 투옥되어 장살되었다.

소론의 모함으로 백망(白望)·이희지(李喜之) 등과 함께 투옥되어 사형에 처해졌고, 1727년(영조 3)에 신원(伸冤: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었다. 신임사화의 삼장신(三將臣)으로 불린다.

- 통제사공종회 총무 大來記 -

廣文會의 새로운 시작 “廣李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2023년 7월 12일(수) 오후 6시, 우리 광주이씨를 대표하는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광문회(廣文會, 광주이씨문화친목회의 약칭) 회의가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그동안 광문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개최하지 못다가 이제 재난의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평상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행사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도착하여 담소를 나누고 있던 회원들은 약속된 시간이 되어 회장(종구 전의원)의 개회선언에 이어 그동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임을 갖지 못한 기간에 유명을 달리하신 회원과 조상님의 명복을 비는 의례를 가졌다. 이어 참석 회원 한분 한분 소개하여 서로의 참석을 알리고, 큰 박수로 반겨주는 반가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제3대 광문회회장을 역임하고 대종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주영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대종회 집행부에서 용두 상임 부회장, 양재 총무이사, 주홍 재무이사, 주병 문화이사가 참석해 주었고, 멀리 광주(光州)에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 위원장, 전주(全州)에서 전북대 중문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경희(廣元군 파 17대) 명예교수, (전)창조한국당 한정(漢正) 국회의원 등 어려운 발걸음으로 참석하여 광문회에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어 지난 제4대 회장으로 5년여간 헌신적인 봉사과 열정으로 본회

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신 종구 회장께 감사의 뜻으로 신임 회장(달곤(達坤) 진해 국회의원)께서 기념품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종구 회장은 인사에서 “회장직을 맡아 廣李의 자긍심으로 각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종인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또한 주말 산행 등으로 회원 상호 간 돈독과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할 즈음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창궐로,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제는 국가재난도 끝난 듯하니, 신임 회장께서 우리 광문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해주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달곤 의원은 지난 1월 소모임에서 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으나, 여러 바쁜 일정으로 오늘에야 취임을 하게 되었다. 달곤 회장은 취임의 일성으로 “廣李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구호를 적어 廣李의 기상을 높이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회장은 “그동안 네 분의 역대 회장들이 이룩한 광문회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새로운 분위기의 광문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다짐을 해 주었다. 이어서 광문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경제 (전)방 송통신위원장이 광문회의 지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사회 지도자로서

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리 廣李는 국회에서도 어느 문중보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廣李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 하다”고 전하였다. 오늘 처음 참석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경희(廣元군 17대) 이사장은 광문회 참석 소회를 얘기해 주었다. 얘기는 끝이 없어 시간은 부족하고 모든 회원들의 인사와 소견을 듣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하고 저녁 식사는 종전의 뷔페식에서 스테이크로 하여 불편을 덜었다. 수구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의학박사)께서 광문회의 발전을 위한 건배사를 시작으로 회원들은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묵혔던 많은 정담을 서로 간 즐거움 속에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모임은 가을쯤으로 하는 것과 기타 사항은 의견을 모아 공지 사항으로 전하기로 하며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廣元군과 양진재공종회 총회 개최

◎ 달곤(達坤) 광문회 신임회장 소개



1953년 9월 경남 창원 출생
 현직 :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학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케네디스쿨 정책학과 졸업

정책학박사(미국 하버드대, 1987년)

주요 경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전)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제사격연맹(ISSF) 이사 겸 집행위원(현)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현)

국민의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광주이씨 광문회 소개

광주이씨 광문회(廣文會)는 「광주이씨 문화친목회(廣州李氏 文化親睦會)」의 약칭이다. 1989년 7월 3일 회칙을 제정하고 정식 출범하면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회원의 가입은 광주이씨로서,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 이내, 총무 1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광문회는 전국 광이(廣

李)의 명망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회원(창립 당시 114명)으로 등록하여, 매년 1월 2주째 월요일에 신년하례식을 겸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월례회는 기수(奇數) 달 2주째 월요일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초청강의를 들었다. 또한 운영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였으며, 회원은 가입비와 연회비 및 월례 회의비 납부를 의무로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오던 광문회는 제4대 회장(鍾九 회장) 취임 이후, 광문회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주말 산

행을 시도하여 회원들과 함께 호연지기의 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회의 및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코로나 19의 사태가 종결되었으므로 광문회는 광이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기회를 살리고 일신의 변화를 위하여 체제 및 회원을 정비하는 동시에 더욱 훌륭하고 관심있는 회원을 확보하여 상호간의 따뜻하고 정(情)이 넘치는 모임이 되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기고문] 2023 여름 광주이씨 광문회에 다녀와서

- 일시 : 2023. 7. 12. 18:00 ~ 20:00
- 장소 : 명동 퍼시픽 호텔 2층 볼룸
- 참석자 : 종구, 달곤, 경재, 용철, 용호, 우재, 향재, 종철, 수구, 준웅, 정덕, 경희 등 40여 명



오늘 저녁 6시에 광주이씨 광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여 만에 명동 소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경재(敬在) 전의원이 10여일 전에 전해 왔다. 꼭 참석하여 친애하는 廣李 후손들을 만나보기로 작심하고 기다려 왔다. 오늘 아침에 다시 경재 의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주)공간의 상림(祥林) 회장에게 연락하니, 선약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한다. 5시 20분 경 호텔 1층 커피 라운지에서, 경재의원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후에, 잠시 지내온 이야기를 하고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가 후손들과 반갑게 인사 후 헤드 테이블에 좌정하였다.

시간이 되어 종철 총무 사회로 2023 여름 광문회가 시작되었다. 국민의례가 있는 후 종구(鍾九) 현 광문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인사말을 통해 종구 회장은 “어려운 팬데믹으로 그간 모이

지 못했던 광문회원 여러분을 뵈니 감개무량하며, 앞으로 신임 달곤 회장이 우리 광문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얼마 전에 출간된 광이 100년사를 통해, 선조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광이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달곤(達坤) 회장은 “‘광이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를 구상하느라 무척 고심했으며, 역대 회장들이 이룩하신 광문회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다음은 오랫동안 광문회장으로 수고한 경재 회장으로부터 광문회의 출범 연혁과 역사를 전해 듣고, 앞으로 광문회의 큰 발전을 도모하자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별히 필자를 소개하며 문정동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 우리 광문회원을 초청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에 마음속으로 이를 쾌히 수락하였다.

뒤이어 용호(容鏞) 현역 의원은, “역대 국회의 기록을 보면 우리 廣李처럼 국회의정 활동이 활발한 종파도 없으며,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광이의 눈부신 활약이 크게 기대되며, 우리 모두 광이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축사의 말을 남겼다. 이어서 필자가 단상에 올라 신상 소개를 한 후에, “광이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자는 뜻깊은 표어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고 내려왔다. 뒤 이어 달곤 회장으로부터 종구 회장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가 이어졌는데 훈훈하면서 아름답

다운 모습들이었다. 이 밖에 광원군파 종회의 회장 용철, 광이 대종회의 부회장 용두, 퍼시픽 호텔 종철 회장과 12대 대종회 도유사를 지낸 재진,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준웅, 이치과 의원 원장 수구, 대농바이오 영농조합 농수산 대표 정덕, 건축기술사 향재 등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특별히 향재는 유일한 건축기술자로 시공 및 품질기술사로 활약 중이다. 뿐만 아니라 향재는 업무상 우리 연구원을 전부터 잘 알고 지내왔으나, 이곳에 와서 비로소 필자가 廣李임을 알게 되었노라고 무척이나 반가워한다.

앞으로 우리는 흠어져 있는 광이가 단합하여,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을 발굴 계발하고, 상부상조하여 이를 키워 나아가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에 ‘광이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말을 계속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뜻깊고 행복한 하루였다.

- 2023. 7. 13. 오전 5:00 서빙고현에서 범산 이 경희 쓰다 -



◎ 이경희 (李璟會)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소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대학원 공학석사(공학사/공학석사)
영국 AA School of Architecture, London(AA Dip).
영국 Strathclyde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Ph.D.(건축환경)
주요경력
현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2004) / 명예교수(현)

수(현)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 전국공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사)대한건축학회 회장. 명예회장(현재)
한국교육시설학회 회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총괄 부원장(현)
미국건축가협회(AIA) 명예 펠로우(Hon.FAIA)(현)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초대 및 2대 회장, 명예회장(현)
현재 일본 공기조화, 위생공학회 국제 명예회원(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원장. 이사장(현)
상훈
(사)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공로상 수상,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수훈, 제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건축인 최우수상 수상,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공로상, (사) 대한건축학회 대상, 대한민국환경대상 ‘친환경건축부문대상’ 수상 저서
번역건축환경계획 외 12권,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의 10권 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500여편

확수회 산악회 소식

재경확수회 산악회(회장 종철)는 7월 정기산행을 대신하여 둔촌선조 불천위제(7월 23일)를 앞두고 7월 16일 성남 하대원동 소재 둔촌선조 묘역 주변 정화작업(벌초)을 실시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다 보니,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모두 힘을 모아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둔촌(휘 집), 사인공(휘 장손), 대사간공(휘 극규) 선조 묘소와 진입로 등 주변 정화작업을 마치니 11시경이 되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새벽 일찍 시작하면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던 결과이다. 작업을 끝낸 회원들은 인근 식당(덕원 생고기)으로 자리를 옮겨, 음식과 반주를 곁들여 덕담을 나누며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이씨 산악회는 8월 26~27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청장년연합회 행사 관계로 휴산한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추석과 세일사를 앞두고 둔촌 선조 묘역 정화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광이산악회 총무 성수 기 -



廣州이씨 “독립유공자유족회” 소개

우리 광주이씨 ‘독립유공자유족회’는 조상님들께서 이어오신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일제치하에서의 암울했던 시절을 오로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적극 몸바쳐 오셨던 선조님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후손으로서 선조님들의 행적을 선양하고 본받기 위하여 유족들이 뜻을 모아 2020년에 설립하였다.

해방 이후 1987년도까지 문중내 독립유공자로 족보에 수록된 분은 열다섯이었으나, 그 후 후손들의 적극 발굴 노력으로 23명의 독립유공자가 추서됨으로써 2023년 현재 총 38분에 이르고 있다.

대중회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문중 내 독립유

공자를 일제 조사한 결과, 당시 보훈처에 정식 등록 확인된 분은 31분이었으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유족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2020년 2월 위로 회 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광이 독립유공자유족회’가 발족 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광원군파종회 용일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총무에는 좌통례공파 호순 회원이 선임되었다. 그 후 코로나 사태로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2022년 12월 제2차 유족모임을 통해 신임 회장에 광복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광원군파 용위 회원을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침체되었던 모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회에서도 본 모임을 위하여

년1회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유족회는 선조들의 구국 행적을 한 분 한 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추모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廣李 ‘독립유공자유족회’ 총무 호순 書 -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의장면

제28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우수작품 소개[2]

대상 경기에총회장상

[초등부]

“5만 원으로 얻은 깨달음”

- 서현초등학교 4학년 이지아 -

“야, 너네 엄마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서 맛있는 거 사 먹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하루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말했다.

언니는 나랑 친해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다. 내가 8살, 언니는 10살이었다.

나는 심심하기도 하고 큰돈을 만져보고 싶기도 했다. 용기를 내서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며칠 동안 5만 원을 숨길 장소를 찾다가 인형 뱃속에 숨겼다.

마침내 5만 원을 펄펄 쓰는 날이 왔다. 이상하게도 뒤통수가 따가웠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나 혼자서 안절부절못하였다. 꼭 누군가가 나를 쫓아보는 것만 같았다. 엄마 돈을 훔치지 말라는 하늘님의 신호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난 그 신호를 무시했다.

먼저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라면을 먹자는 언니의 조언 때문에 라면을 샀다. 그리고 치즈와 같이 먹

으면 더 맛있다는 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치즈 두 개를 샀다. 라면을 치즈와 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언니가 노래를 불렀다.

“맛있는 라면. 특별하고 맛있는 라면! 시간아, 빨리 가라. 똑딱똑딱. 나 배고프다. 똑딱똑딱!”

내가 라면을 다 먹었을 때쯤 언니가 달콤한 라떼가 먹고 싶다고 했다. 달고나가 한창 유행할 때라 달고나 라떼를 사러 동네 카페로 갔다. 달고나의 맛이 잘 드러나면서 우유로 잘 어우러지니 환상의 맛이였다.

얼마 남지 않은 달고나 라떼를 빨대로 쪽쪽 빨고 있을 때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언니의 외할머니께서 나와 언니가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꾸중하셨다.

“야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 거들먹거리며 달고나 라떼만 마시고 있어? 안 되겠다. 따라와.”

나는 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이 폭 빠졌다. 언니의 외할머니가 나의 엄마에게 내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난 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커다란 돌덩이가 내 팔을 친 것처럼 두 팔이 얼얼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께서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눈만 깜빡거리는 날 보고 엄마께서 호통을 치지 않으셨고 나를 잘 나무라며 말씀하셨다.

“나도 어릴 적에 네 이모와 같이 마트에서 캐러멜 하나를 훔쳐봤어. 하지만 그날 밤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쿵쿵쿵 뛰었어. 그래서 난 네 이모

와 같이 네 할머니께 내가 캐러멜을 훔쳤다고 말했어. 그래서 뒤통 혼이 났지...네가 앞으로 잘해야 하는데... 다음번엔 그러면 안 돼. 너도 알지? 엄마가 믿을게. 다음번에도 한 번 더 그러면 혼난다. 알았지?”

‘아이 그냥 혼을 내주시지 뭐 이런 고생까지 만들어.’

난 속으로 투덜댔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된 것도 많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온 진심으로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 입 따로 마음 따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쁜 말은 아니다.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좋은 선택 같기도 했다. 엄마가 내 방문을 닫을 때까지 멍하니 있었다. 한참 후 난 내 머리에 약하게 꿀밤을 때리며 혼자 조금 웃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누구의 돈도 탐을 내본 적이 없다.

이제 11살이 된 지금,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는 8살 나를 본다면, 난 온 힘을 다해 돈을 훔치려는 8살 나를 막을 것이다. 정직하게 돈을 다루는 법을 깨달아야 하는 나, 지금도 부족할진 몰라도 그 일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모은 돈은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중등부]

“둔촌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 향남중학교 1학년 유시윤 -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아빠를 둔 딸은 피곤하다. 매일매일 독서를 하고, 현장체험학습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이병원 생가에 가서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둔촌 이집 선생님 묘역을 가자고 하신다. 묘역에 도착하여 아빠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소가 많은 나라이다. 세계에서 산소가 제일 많다. 산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상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산소 중 60%는 주인이 없다. 곧 관리도 안 되고 후손들이 조상의 묘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인이 있는 산소는 그만큼 효도를 잘 실천하

는 잘된 후손이라 할 수 있다. 이집 선생님 묘역은 왕릉처럼 매우 넓고 컸다. 매우 관리도 잘 되었으니 후손들이 효도를 잘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소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굴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집트, 중국은 무덤이 많이 훼손되어있다. 이집트와 중국의 무덤 속엔 금은보화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중국 황제의 무덤 속에는 엄청난 보물들과 금은보화가 있으니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파헤쳐서 훼손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무덤은 훼손되지 않았다. 무덤 속에 대부분 금은보화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선비정신을 지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빠는 둔촌 선생님을 소개한 안내문 앞에서 또 말씀을 시작하셨다. 경기도 기념물 219호로 지정되어있다. 해마다 6월 초 둔촌 선생님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낸다. 마당이 왜 이렇게 넓은까. 후손이 정말 많고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제사가 끝나면 잔치가 벌어진다. 후손이 참 화려하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수성, 가수 이효리 등이 둔촌 선생님의 후손이다.

이런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지난번 썼던 글이 새록새록 생각났다. 먼저 둔촌 선생님은 효도를 실천하신 분이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금 편찮으시다. 아빠께서는 우리 할아버지를 잘 모신다. 우리 가족은 김장할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한다. 초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구분들, 부모님과 나,

동생, 고모, 사촌오빠가 모두 온다. 나와 동생, 사촌오빠는 김장을 직접 하진 않지만 어른들이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엄마 아빠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효도를 한다. 경상북도 구미에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려서 안부를 여쭙는다. 갈 때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건을 많이 사 가신다.

“성함은 유원열, 육군 사병으로 하사였다. 군번은 0179250이고, 국군 2사단 소속이다.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1952년 10월 26일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셨다. 현재 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바로 우리 증조할아버지 비석에 새겨진 글이다. 둔촌 선생님께서 고려를 위해 충성하셨다면,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돌아가셨다.

둔촌 선생님과 최원도의 우정을 생각하니 아빠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단금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 두터워지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분의 우정은 단금지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기쁠 때 기쁨을 같이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되면서 서로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배신이란 상대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상대를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런 친구 사이에는 둔촌 선생님과 최원도 같은 우정이 있을 수 없다.

둔촌 선생님 하면 제비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나와 있다. 오늘날 보면 제비의 자살이 꼭 올바르다고 볼 순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비는 주인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오늘날 보면 사기꾼도 많고, 보이스포싱, 형제간 재산으로 일어나는 싸움 등등, 모두 의리가 없어서 그렇다. 의리가 있으면 학교폭력도 없어질 것이다.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시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의리가 아닐까 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동생과 부모님 재산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공평하게 나누고 끝까지 자매간의 의리를 지키고 싶다.

둔촌 선생님은 신돈이 죽으므로 4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으셨다. 나라가 혼란했기 때문이다. 지조를 지킨 것이다. 지조를 지키면 당장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조는 남에게 교훈이 되고 후손에게 모범이 된다. 둔촌 선생님처럼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

나는 엄마와 같이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교훈을 끼치는 동화를 쓰고 싶다. 그러기 위해 독서를 많이 하고 체험학습도 자주 다닐 것이다. 둔촌 선생님처럼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조상이 되고 싶다.

[고등부]

“닭은 꿀”

- 운중고등학교 2학년 송 지 우 -

친구의 가방에 걸린 핑크색 곰돌이, 내 가방의 파란색 곰돌이와 비슷했다. 어깨 쭈 오는 머리와 흐트러진 앞머리 몇 가닥과 여름만 되면 이유 없이 차오르는 손의 땀까지, 우리는 닭은 게 많았다. 필통 색깔과 가방 등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오히려 서로 색다른 매력이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시간에 끝나지 않아도 같이 하교하곤 했다. 오늘 유독 기운 없어 보이는 주현이의 상태를 나는 조금 더 살펴야 했다. 그랬다면 모든 게 괜찮았을 텐데. 주현이는 학교를 마치는 종이 울리자마자 책상을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멧했다. 나는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현의 뒤를 쫓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가족 이야기만 꺼내면 어색하게 웃어 보이던 모습이 아른거렸다. 여름에도 긴팔만 찾아 입던 주현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가방끈을 잡은 손에 땀이 났다.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가며 걸음을 옮겼다. 주현이가 끝내 걸음을 멈춘 곳은 닭은 빌라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주현이는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트럭 뒤에 숨어있던 나는 고장난 공동현관 문을

통과했다.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그 경계선에 내가 서있다. 여기서부터 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마른 침을 삼키고 발을 움직였다.

썩그랑, 푹 숙이던 고개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맞춰 들렸다. 곧이어 와르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다. 심장 박동 소리가 어찌나 큰지 문 너머에서도 들릴 거 같았다.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다. 계단을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 주현이 집은 지하였다. 손이 초인종에 이끌려 두 세 번 연달아 눌렀다. 닭은 초인종 소리가 지하를 가득 채웠다. 다른 소리는 더 들리지 않았고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초조해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안에서 둔탁한 소리와 동시에 짧은 비명이 들렸다. 핏줄이 잔뜩 선 채로 나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달달 떨어지는 손으로 전화 키패드에 112를 입력했다. 자꾸 오타가 나서 몇 번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와달라고 한 후 다시 문을 두드렸다. 손 옆구리가 곧 피라도 날 듯 빨개졌다. 부르러지는 두 손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리던 날이 생각났다. 우리 집도 지하였다. 주현이와 나와는 닭은 점이 많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 그 날 우리 집 현관문이 잠겨있었다. 안에서 말소리가 드문드문 끊겨 들렸다. 말소리들은 불륨이 점점 높아져 문 밖까지 울려 퍼졌다. 보이지 않아도 머

릿속으로 다 그려졌다. 무언가 떨어지고 깨지며 말은 더 거세졌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더 악화되지 않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닫힌 문과 부어오른 두 손을 바라보며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문 하나 사이에서 아빠의 고향소리가 몸을 움츠리게 했다. 슬슬 어두워지는 지하가 신고를 받은 경찰차의 불빛으로 밝아졌다. 경찰 두 명이 계단을 신속하게 내려왔고 곧 문을 따기 시작했다. 도어 브리칭 장비로 문고리를 물리게 해서 비틀었다. 잡는 대로 찌그러진 문고리가 덜렁거렸다. 나는 엄마가 무사하길 바라고 또 바랐다. 평소에는 신을 믿지 않았어도 지금만큼은 믿었다. 누구든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집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눈에 보이는 광경은 끔찍하다 못해 소름이 끼쳤다. 검붉은 피가 가득한 채로 쓰러져있는 어머니, 부엌에는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어머니의 몸이 바닥에 내팽겨쳐 있었다. 그 옆에 깨진 꽃병을 들고 허공만 바라보는 아버지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범죄현장에 그대로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정신은 혼미했다. 사람을 붙잡고 병원을 물었고 한 경찰의 소리침에 나갔던 정신이 조금은 돌아오는 듯 했다. 옷에 그려진 경찰 문양만을 향해 엄마가 간 병원을 물었다. 한숨만 내쉬는 경찰의 옷 끄트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아무 말 없

이 따라오라는 몸짓에 잠자코 뒤를 따랐다. 엄마는 잘 있을까. 병원에 있다면 수술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과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날 줄 몰랐다.

늦은 밤 복도에는 경찰과 나뿐이었다. 경찰은 나를 데려다주고는 빠르게 떠났다. 신경을 이어야 한다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공존하며 나를 부추겼다. 나와 마주친 아버지의 눈, 악마의 눈을 새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주현이가 우리 어머니처럼 구급차에 실리고 문이 닫히는 모습을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현

이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에게 먹살을 잡아 올리 고 싶었다. 나에겐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다.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다. 손이 터져라 문을 두드렸다. 주현이와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이는 주현이의 부어오른 피부성이 얼굴에 맑은 눈물이 또 르르 흘러내렸다. 너무나 닮았던 주현이와 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하교하던 때가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오늘 학교에서 유독 기운 없어 보이던 주현이를 신고 구급차가 떠났다.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어, 주현이다. 반대편 횡단보도에 서있는 주현이를 발견했다. 정말 보고 싶으면 헛것이 보이거나 보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7월 구독 및 찬조			이석성	10,000	경북 울진	이흥래	10,000	경북 영양	이흥래	10,000	경북 영덕
이용구	20,000	충북 충주	이승재	10,000	경북 울진	이흥래	10,000	충남 천안	이종철	10,000	경북 울진
이희재	10,000	서울 노원	이용관	10,000	서울 중구	이용욱	10,000	경기 김포	이춘래	10,000	서울 양천
이익재	10,000	경기 하남	이용덕	10,000	대구 달서	이정재	10,000	대구 북구	목사공파총회 10,000 X 20명 =200,000원		
이석기	10,000	경기 안양	이용락	10,000	서울 강동	이용환	10,000	부산 북구	이춘신	10,000	서울 광진
이무환	10,000	경기 수원	이용래	10,000	부산 동구	이용실	10,000	경북 포항	이좌운	10,000	서울 동대문
이택	10,000	경북 칠곡	이용문	10,000	경기 수원	이경재	10,000	경기 의정부	이치구	10,000	충북 보은
이근하	10,000	인천 남동	이용석	10,000	경북 울진	이병택	10,000	경북 포항	이석구	10,000	경기 성남
이종용	20,000	경기 시흥	이용익	10,000	서울 양천	이용표	10,000	서울 강동	이재구	10,000	인천 서구
이용성	10,000	경기 고양	이용창	10,000	경북 울진	이중재	10,000	경북 구미	이재필	10,000	서울 마포
이철재	10,000	서울 영등포	이용칠	10,000	부산 연제	이기호	10,000	경기 화성	이종환	10,000	강원 원주
문숙공파총회 10,000 X 72명 =720,000원			이용팔	10,000	대구 서구	이중래	10,000	전남 목포	이문신	10,000	서울 관악
이강래	10,000	경북 울진	이원재	10,000	서울 서대문	이용운	10,000	강원 춘천	이종익	10,000	대전 서구
이경래	10,000	경북 영양	이윤래	10,000	부산 북구	이관래	10,000	대구 달서	이병석	10,000	경기 안성
이광웅	10,000	경북 울진	이은래	10,000	경북 울진	이원래	10,000	부산 금정	이범수	10,000	경기 이천
이극래	10,000	강원 원주	이재동	10,000	경북 영덕	이성래	10,000	경기 시흥	이영균	10,000	인천 서구
이근래	10,000	대구 달서	이재혁	10,000	경북 영양	이효재	10,000	경북 포항	이구현	10,000	대전 유성
이금환	10,000	경북 울진	이종각	10,000	경북 울진	이정길	10,000	부산 해운대	이병진	10,000	경기 파주
이길정	10,000	경북 포항	이종국	10,000	경북 울진	이정래	10,000	부산 강서	이화준	10,000	경북 영주
이대래	10,000	경기 안양	이종경	10,000	경북 경주	이상수	10,000	경북 울진	이성열	10,000	경기 의정부
이목래	10,000	대구 동구	이종언	10,000	경북 울진	이환래	10,000	부산 금정	이성우	10,000	경기 양주
이병곤	10,000	서울 동대문	이종열	10,000	경북 울진	이창래	10,000	대구 북구	이춘만	10,000	경기 군포
이용문	10,000	대구 수성	이종훈	10,000	경북 울진	이종탁	10,000	경남 김해	이종윤	10,000	경기 용인
이병조	10,000	경북 울진	이즉래	10,000	부산 북구	이만규	10,000	경기 김포	목사공파총회 10,000		
이창재	10,000	경남 창원	이천래	10,000	경기 용인	이용활	10,000	강원 인제			
이병헌	10,000	대구 북구	이태환	10,000	경북 울진	이국원	10,000	경북 영주			
이석래	10,000	부산 해운대	이형래	10,000	경북 울진	이혁래	10,000	경북 구미			

“미래를 위한 어울림, 광이의 날”

- 제26차 광주이씨 청장년 연합대회 -

초대합니다.

승조돈목하고 백대지친하라는 선조들의 유훈을 받들어, 계승 발전하고 있는 청장년연합회 제26차 연합대회를 “광이의 날”로 정하고, “미래를 위한 어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광이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청장년 연합회원 및 전국의 많은 종인분들이 함께 하기를 초대합니다.

선조님들의 가르침과 백대지친의 우의를 다지는 초대의 장이 여기에 마련되었으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일시 : 2023년 8월26일(토) 13:30 ~ 27일 (일) 1박 2일간

- 장소 : 대구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로길 10)

- 주최 : 광주이씨 청장년 연합회

- 주관 : 광주이씨 대구·경북 청장년회

- 후원 : 광주이씨 대종회

○ 행사 일정

- 26일

13시 30 접수 및 숙소배정 회보및 유니폼, 선물 배부 (호텔 라운지 접수대)

15시 00 족구, 풍선 굴리기, 신발던지기 게임 (행사장)

16시 30 식전 행사 난타 공연, 국악 및 축하공연

17시 00 유·청소년 보학 시청 및 강의, 퀴즈 (호텔내 중·소회의실)

17시 30 저녁 식사 (행사장)

18시 30 행사장 정리

18시 50 기수단 입장 (연합회 가입 순)

19시 00 1부 개회식 (행사장)

20시 30 2부 친교의 밤 → 초대가수 및 지역 회원

노래자랑 (행사장)

23시 00 1일차 행사 종료 및 취침

- 27일

06시 30 기상 및 조식 (호텔식)

09시 30 퇴실 및 귀가 (각 지역별 일정)

유적지 : 영천 시조묘, 칠곡 입향조 사랑 묘, 칠곡

석담 종택, 왜관 석전 동산재, 귀암 종택 등 주변

관광지 : 대견사, 유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동 서원 등

- 제25대 광주이씨 청장년 연합회장 상철 배상 -



광주이씨 변호사 중 재능기부 가능하신 분
대종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 02)735-1720 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3年 8月 1日

<제390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暲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